

유년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영향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Emotional Influence and it's Implications of Childhood Housing Environment

정 준 현*
Jeong, Jun-hyun

Abstract

The study analyzed emotional influence and it's implications of childhood housing environment with the environmental autobiography method. 222 essays of students in 'T' University based on childhood memory are collected in identifying physical environment, emotional meaning and the value of places to them.

Findings indicate that childhood housing environment is recognized as a influencing factor for making individual personality and the view of the world. The study also found that emotional recognition for the housing environment is given much weight in the indoor places, and to be the most affirmative adaptation attitude. Emotional influence of housing environment i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a residential area and house type, and each places of housing environment is charged in the variety emotional characters.

I. 서 론

1. 연구목적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좋은 싫든 주거환경의 범주속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존재를 확인하여 왔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경험은 우리들의 태도와 정서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즉, 인간의 태도에는 유쾌한 느낌이나 불쾌한느낌, 호(好)불호 같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 또는 정서가 포함되어 지기 때문에 유년시절의 주거환경의 현상적 경험은 생활 주체자에게 정서화된 기억으로 남게 되며, 이는 환경에 대한 태도 혹은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유년시절은 부모, 형제 등의 가족환경이나 또래 집단 등의 사회적 환경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과

직접 관계를 맺고 반응하면서 성장 발달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어린 시절에 성장했던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억들은 자신이 성장한 집과 주변의 환경, 비밀의 장소와 같은 특정 장소와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 장소들이 관련되어 있다. 유년기 회상 속의 장소들은 그 개인에게 당시의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보유한 장소이다. 따라서 회상기록을 이용하여 유년기의 가치적으로 주거환경의 정서적 내용을 분석함은 아동에게 필요한 환경의 질과 속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년기에는 주거와 인접근린환경은 아동이 가지는 이동성의 한계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주거유형에 따라 이들이 인식하는 정서적 반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고밀화

* 정회원, 대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본 연구는 1999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되어 지는 도시주거환경에서는 어떠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회상기록분석 방법을 통하여 유년시절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인식과 그 의미를 고찰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주거환경 계획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라 할 수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고에서의 현상학적 접근이란 현상학적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입각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어린시절 그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주거환경(장소, 주거형태, 골목, 지역 등의 환경적 요소)요소들이 당시 그들에게 어떻게 인식 되었으며, 나아가 그것이 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어린시절 주거환경이 기억을 통해 회상되어질 때, 이들의 기억은 곧 당시 현상적 환경요소의 정서화된 한 유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규목(1988)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실존 현상학적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주거란 거주자의 거주하는 장소 사이의 정서적인 혹은 의미있는 관계로 해석하였으며, 그런면에서 주거는 하나의 체험적 현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토놀리(Tognoli, 1982)는 주거환경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방법을 사용하여 어린 시절에 살던 집에 대한 주거환경이 성장과정에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기억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기가 체험한 주거환경들에 대한 기억이 본인의 태도와 가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코르섹세르파티(Kordsec-Serfaty, 1984)는 프랑스의 단독주택들에 있는 다락방과 지하실이라는 상과 下의 독특한 장소들에 대한 거주자들의 실존적 체험기를 수집하여, 이들 공간에 대한 개인적 私用化(appropriation)가 주거공간 전체의 체험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문은미(2000)는 C. C. Marcus(1978)가 제시한 환경자서전(environmental autobiography)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적절한 주거환경의 계획과 설계를 위한 시도로 유년기 회상기록을 통해 어린이 놀이 공간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어린이 놀이공간계획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회상기록적 분석방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가 아닌 어린 시절 장소에 대한 어른의 태도임으로 기억되는 장소는 그 장소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나 정서와 더 큰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얼마간 실제보다 변형되거나 왜곡될 수 있지만 10~20년의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는 기억은 분명 감정적 혹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유년기의 경험에 대한 기록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주거환경의 의미를 인간-환경의 관계에서 개인적, 주관적인 현상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를 회상기록적 방법을 통하여 유년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영향과 그 의미에 관하여 논하고 한다.

II. 조사 분석 개요

1. 조사 개요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T"대학교의 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거주자의 유년시절 주거환경에 대한 회상적 기록과 주거평면 및 주변환경의 스케치, 그리고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회상 기록을 위한 지시사항은 최소로 하여 기억에 떠오르는 모습을 자유스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항목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1) 어린시절 중요한 의미가 담긴 장소들 2) 그 장소에서의 행위들 3) 그 장소에 대한 정서적 의미 등을 언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첨가하여 유년시절의 개인적 특성과 정서적 영향력 및 정서적 내용을 설문하였다. 정서

적 내용은 20개의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진 Likert 7점 척도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설문조사는 2000년 4월15일~20일에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증을 하였다.

2. 분석의 틀

회상기록자들은 주거환경의 특정 장소를 그 장소와 연관된 특수한 감정 내지 정서적 심리 과정을 함께 서술한다. 즉 그 장소가 왜 기억에 남아있고, 또한 어떤 느낌들을 가졌는지 등을 서술하고 있다. 서술된 각자의 감정들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소 별로 서술된 내용의 유사한 패턴이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기억되는 장소의 특성들은 유년기의 환경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와 연관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년기 아동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장소의 속성과 정서적 의미를 일반적 변인들과 대응시켜 분석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의 장소와 정서 평가 척도, 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장소의 분류

회상기록에 언급된 장소들은 표3과 같이 집안인 주거내부와, 집 경계 내의 주거외부, 길과 공지, 자연 등을 포함한 동네어귀로 분류하였다.

2) 정서적 의미 분석

유년시절 주거상황에 대한 정서적 내용은 Mehrabian과 Russell(1974)에 의해 제시된 정서 상태 측정 의미분별척도를 보완하여 20개의 형용사 쌍을 Likert7점 척도로 하여 유년기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의미의 평가도구로 사용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남·녀의 비율은 남학생이 33.3%, 여학생이 66.7%이다. 이는 성별에 따라 주거환경의 정서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변수이다. 다음으로 성격은 현재 본인들의 성격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낙천적인 경우가 가장 높고(61.7%), 다음으로 진취적(20.3%), 보수적(7.2%), 현실적(6.8%), 체념적(4.1%)순이다. 성격 형성은 유년시절 여러 가지 환경적 변인들에 의해 형성되어진다고 보면, 주거환경 또한 성격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당시 유년시절의 가족수는 3~4명(41.9%), 5~6명(39.2%)으로 구성된 핵가족(65.8%) 구조가 대부분 이었다.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이 63.5%, 농촌과 어촌이 각각 30.2%, 6.3%이며, 주거형태는 단독 주택이 7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를 포함한 아파트 주거형태는 27.9%이다.

이러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이 주거환경요소와 정서적 반응과의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하는 변인으로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예수(%)	구 분		예수(%)
성별	남	74(33.3)	가족 구조	핵가족	146(65.8)
	여	48(66.7)		확대	60(27.0)
성격	진취적	45(20.3)	주거 지역	방계	16(7.2)
	낙천적	137(61.7)		도시	141(63.5)
	보수적	16(7.2)		농촌	67(30.2)
	현실적	15(6.8)		어촌	14(6.3)
	체념적	9(4.1)		단독	160(72.1)
가족 수 (명)	3-4	93(41.9)	주거 형태	아파트	40(18.0)
	5-6	87(39.2)		기타	22(9.9)
	7-8	35(15.8)			
	9이상	7(3.2)			

III 분석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2.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력의 인식

회상기록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지금의 본인의 성격이나 가치관 혹은 인생관의 형성에 유년시절의 주거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

있는가 하는 질문, 조금 크게(58.1%) 내지 매우 크게(22.5%)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전체의 80.6%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유년시절 주거환경의 체험은 개인의 성격 내지 가치관 형성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력 인식

구 분	예 수	%
1 매우 크다	50	22.5
2 조금 크다	129	58.1
3 그저그렇다	37	16.7
4 거의 없다	6	2.7
5 전혀 없다	.	.

3. 장소별 정서적 반응의 빈도

회상 기록에 의해 상기된 주거환경의 장소를 주거내부, 주거외부, 근린장소로 경계화하여 이들 장소가 정서적 반응을 보인 빈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주거내부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개인방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고(70.7%), 그 다음으로 부엌(식당)(63.5%), 대청마루(거실)(56.8%), 안방(큰방)(47.7%) 등의 순이다. 특히 현관, 베란다, 다용도실 등이 정서적 장소로 빈도를 보인 것은 아파트의 경우 이들 공간이 어린이의 놀이 장소로도 활용되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외부의 장소는 앞마당이 가장 큰 빈도를 보이며(53.6%), 그 다음으로 변소(51.4%), 헛간(18.9%), 옥상(18.9%), 화단(16.2%) 등의 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래식 변소는 유년기에 있어 두려움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대표적 장소이다. 그리고 옥상은 특히 도시주택에서는 마당의 협소함으로 옥상이 어린이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어 짐을 의미한다. 주거의 외부세계인 골목길, 공지, 앞·뒷동산 등의 근린 장소는 8.1%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주거환경의 정서적 내용은 주거내부환경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장소별 정서적 영향의 빈도

구 분	빈 도	%	
주 거 내 부	안방(큰방)	106	47.7
	대청마루(거실)	126	56.8
	개인방	157	70.7
	사랑방(할아버지방)	9	4.1
	할머니방	8	3.6
	다락방	33	14.9
	부엌(식당)	141	63.5
	현관	17	7.7
	지하실	5	2.3
	목욕탕(욕실)	23	10.4
	베란다(발코니)	37	16.7
	다용도실	12	5.4
주 거 외 부	앞마당(앞뜰)	119	53.6
	뒷마당(뒷뜰)	13	5.9
	재래식 변소	114	51.4
	수돗가	22	9.9
	장독대	11	5.0
	헛간(창고,곡간)	42	18.9
	옥상	42	18.9
	계단	8	3.6
	화단	36	16.2
	근 린	동네어귀(집밖전체,놀이터,아파트단지 등)	18

4.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

유년시절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내용은 20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된 평가척도에 의하여 평가되어 졌다. 먼저 이들 어휘를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였으며, 각 요인별 성분분포는 표4와 같다.

요인1은 기쁜, 유쾌한, 흐뭇한, 즐거운, 희망적인, 행복한, 만족스런, 사랑스런 등의 어휘 8개 성분으로 수렴되었으며, 이들 어휘에 의한 설명력은 전체의 28.9%이며, 이를 '유쾌성'으로 명하였다. 요인2는 시원한, 쾌적한, 바람직한, 느긋한, 친근한 등의 5개 성분으로 수렴되었으며,

설명력 12.4%의 '쾌적성'으로 명하였다. 요인3은 힘있는, 지배적인, 통제적인, 영향을 주는 등의 4개 성분으로 설명력 8.6%의 '지배성', 요인4는 자극적인, 흥분된, 민감한 등의 성분으로 수렴되었으며, 6.2% 설명력의 '흥분성'으로 각각 명하였다. 이들 4개의 요인에 의한 전체 설명력은 56.26%이다.

표 4. 요인별 성분(어휘)분포 및 설명력

요인	성분(어휘)	설명력(%)
요인1 (유쾌성)	기쁜, 유쾌한, 흐뭇한, 즐거운, 희망적인, 행복한, 만족스런, 사랑스런	28.91
요인2 (쾌적성)	시원한, 쾌적한, 바람직한, 느긋한, 친근한	12.44
요인3 (지배성)	힘있는, 지배적인, 통제적인, 영향을 주는	8.67
요인4 (흥분성)	자극적인, 흥분된, 민감한	6.23

표4의 요인별 형용사 어휘를 통해서 유년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의미를 분석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유쾌성'으로 수렴된 정서적 내용 중 '즐거운', '행복한', '기쁜', '유쾌한' 등의 내용들이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쾌적성'으로 수렴된 내용 중 '친근한' 정서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시원한', '느긋한' 정서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쾌적한' 정서 내용은 비교적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배성'으로 수렴된 내용 중 '힘 있는', '지배적인' 정서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통제적인', '영향을 주는' 정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해 유년기의 주거환경은 '통제적이 아니며',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의 반응을 보였다. '흥분성'의 내용은 '자극적이 아니며', 비교적 '흥분되지 않으며', 그러나 다소 '민감한' 정서적 의미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유년시절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은 정서적으로 극단적이기보다는 대부분 긍정적인 적응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

요인	성분(어휘)	평균반응	비고
유쾌성	기쁜/두려운	1.43	1.43
	유쾌한/무서운	1.42	
	흐뭇한/울적한	1.22	
	즐거운/즐겁지 않은	1.80	
	희망적인/절망적인	1.25	
	행복한/불행한	1.70	
	만족스런/불만스러운	1.25	
쾌적성	사랑스런/저주스런	1.15	1.25
	시원한/답답한	1.17	
	쾌적한/불쾌한	.98	
	바람직한/바람직 못한	1.04	
지배성	느긋한/지친	1.05	.10
	친근한/낯선	2.01	
	힘있는/힘없는	.28	
흥분성	자극적인/편안한	-1.08	-4.7
	흥분된/가라앉은	-.44	
	민감한/둔감한	.12	

범례 : 행복한(3, 2, 1, 0, -1, -2, -3)불행한

IV. 내용의 해석 및 논의

1. 변인별 정서적 영향력의 상관성

변인별 주거환경의 정서적 영향력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개인적 변인인 성별과 성격, 가족 변인인 가족수, 가족구조에 따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주거환경적 변인인 주거지역과 주거형태에 따라 각각 그 영향력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P < .05). 다시말해, 개인적, 가족적 변인은 변인에 상관없이 '비교적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되어지는 반면, 주거경험지역이 도시인 경우보다도 농촌, 어촌지역의 경우가 보다 정서적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또

한 주거형태는 아파트보다도 단독이 비교적 영향력이 큰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따라서 유년시절 농촌, 어촌지역의 단독주택의 거주자들은 대부분 도시지역, 아파트 주거형태보다 정서적 영향이 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표 6. 변인별 정서적 영향력의 상관성

구 분		영향력(평균)	표준편차	F 검증	
개 인	성별	남	1.93	0.69	F=.878 n.s
		여	2.03	0.72	
적 변 인	성격	진취적	1.89	0.78	F=1.062 n.s
		낙천적	1.99	0.68	
		보수적	1.94	0.77	
		현실적	2.27	0.89	
		체념적	2.22	0.44	
가 족 적 변 인	가족수 (명)	3~4	2.08	0.71	F=1.997 n.s
		5~6	1.98	0.75	
		7~8	1.94	0.59	
		9이상	1.43	0.53	
	가족 구조	핵가족	2.04	0.71	F=1.878 n.s
		확대	1.97	0.71	
		방계	1.69	0.60	
주 거 환 경 적 변 인	주거 지역	도시	2.09	0.70	F=3.913 P<.05
		농촌	1.85	0.74	
		어촌	1.71	0.47	
	주거 형태	단독	1.96	0.70	F=3.596 P<.05
		아파트	2.25	0.78	
		기타	1.82	0.50	

2. 주거형태별 정서적 내용의 상관성

주거형태에 따른 주거환경의 정서적 내용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

20개의 정서적 내용 중 주거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내용은 '즐거움/즐겁지 않은'(P <.05) '홍분된/가라앉은'(P <.05) 내용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즉, 아파트 주거형태에 비해 단독주택의 주거형태가 '즐거움' 정서에 영향을 주며, 또한 '홍분된' 정서보다는 '차분한' 정서를 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 7. 주거형태별 정서적 내용의 상관성

정서적 내용	주거형태			χ^2
	단독	아파트	기타	
즐거움/즐겁지 않은	1.81	1.73	1.93	15.809*
홍분된/차분한	-.50	-.35	-.14	19.862*

* p <.05

3. 주거지역별 정서적 내용의 상관성

주거지역에 따라 정서적 반응의 차이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유년기 주거환경의 지역적 차이에 의하여 '기쁜/두려운'(P <.05), '친근한/낯선'(P <.05), '시원한/답답한'(P <.05) 등의 정서적 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 농촌(어촌)지역에 비해 도시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이 보다 높은 '기쁜' 정서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며, 또한 도시, 어촌보다는 농촌 지역이 '친근한' 정서가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시원한' 정서도 도시에 비해 농촌, 어촌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인식은 유년시절의 성장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8. 주거지역별 정서적 내용의 상관성

정서적 내용	주거지역			χ^2
	도시	농촌	어촌	
기쁜/두려운	1.45	1.46	1.00	20.982**
친근한/낯선	1.91	2.30	1.71	17.941*
시원한/답답한	.96	1.63	1.00	18.616*

* p <.05 ** p <.01

4. 장소에 따른 정서요인의 반응

유년기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내용을 장소에 따라 정서요인별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그 장소의 정서적 속성을 밝힐 수 있으며, 이는 표 9와 같다.

주거내부의 경우는 안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간들이 비교적 높은 '유쾌성'의 긍정적 정서를 보이고 있으며, 마루(거실), 개인방, 사랑방은 '쾌적성'의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실은 '유쾌성'의 정서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유년시절 자신만의 비밀스런 장소로 활용되었던 기억들에 의하여 정서적으로 충만된 장소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할머니방은 긍정적인 '쾌적성'과 부정적인 '홍분성'의 복합적인 정서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핵가족 단위의 주거환경보다는 확대가족 단위의 주거환경이 보다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외부 장소의 경우는 뒷마당과 수돗가, 옥상 등은 '유쾌성'의 정서요인이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변소, 장독대, 헛간, 화단 등은 '쾌적성'의 정서가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이며, 앞마당은 '지배성', 계단은 '홍분성' 등의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장소에 따른 정서요인별 반응

장소	요인	유쾌성	쾌적성	지배성	홍분성
주거내부	안방(큰방)	1.46	.39	.75	.79
	마루(거실)	1.59	1.74	.33	-1.26
	개인방	.90	.98	.13	-.87
	사랑방	1.17	2.00	-	1.00
	할머니방	.15	1.33	-	-1.33
	다락방	1.65	1.50	.17	-1.08
	부엌,식당	1.51	.86	-	-.33
	현관	1.48	.34	-	-1.25
	지하실	2.00	1.25	-	-
	목욕탕	1.58	.67	-	.54
	베란다	1.35	1.35	-	-.11
	다용도실	1.33	.9	.11	-
주거외부	앞마당	1.51	1.71	-3.00	-1.04
	뒷마당	1.04	-	-	-.50
	변소	.73	.87	-	-.50
	수돗가	1.69	1.25	-	-1.25
	장독대	1.25	-2.00	-1.00	-1.50
	헛간	.93	1.74	.00	-.69
	옥상	1.70	1.03	-	-1.63
	계단	1.00	.33	-	-1.50
화단	1.43	1.67	-	.38	
근린	동네어귀	.98	-	-	.67

마지막으로 근린장소인 동네어귀는 '유쾌성'과 '홍분성'의 정서가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의 경우 대문 앞이나 골목길은 민병호(1998), 문은미(2000) 등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들의 활동적인 놀이행위가 일어나는 의미있는 장소로 해석되어짐을 볼 때, 이들 장소는 매우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결과에 미루어 볼 때, 유년기에 있어서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은 각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특히 이들 장소는 이러한 정서적 내용에 의하여 특성화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현상학적 회상기록분석 방법을 통하여 유년시절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내용과 그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회상기록자들의 유년시절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반응에 미루어 볼 때 유년시절의 주거환경은 개인의 성격 내지 자신의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주거환경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장소로서, 주거내부의 경우에는 개인방, 부엌(식당), 대청마루(거실), 안방(큰방) 순의 빈도를 보였다. 주거외부의 장소로는 앞마당, 변소, 헛간, 옥상, 화단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특히 도시주택에서는 마당의 협소함으로 옥상이 어린이의 놀이 공간으로 이용되어 집에 따라 이곳이 정서적 의미의 장소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거의 외부세계인 골목길, 공지, 앞·뒷동산 등의 근린장소는 낮은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유년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의미는 주거내부환경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내용은 '유쾌성'의

로 수렴된 정서적 내용 중 ‘즐거움’, ‘행복한’, ‘기쁜’, ‘유쾌한’ 등의 내용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쾌적성’으로 수렴된 내용 중 ‘친근한’ 정서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지배성’으로 수렴된 내용 중 ‘힘 있는’, ‘지배적인’ 정서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통제적인’, ‘영향을 주는’ 정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분성’의 내용은 ‘자극적이 아니며’, 비교적 ‘홍분되지 않으며’, 그러나 다소 ‘민감한’ 정서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유년시절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은 정서적으로 극단적이기보다는 대부분 긍정적인 적응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변인별 주거환경의 정서적 영향력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변인인 성별과 성격, 가족적 변인인 가족수, 가족구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주거환경적 변인인 주거지역과 주거형태에 따라 각각 그 영향력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주거지역이 도시인 경우보다도 농촌, 어촌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는 아파트보다도 단독, 기타 주택이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주거지역과 주거형태에 따른 정서적 반응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먼저 주거형태는 ‘즐거움/즐겁지 않는’, ‘홍분된/가라앉는’ 정서적 반응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지역에 따른 정서적 반응은 ‘기쁜/두려운’, ‘친근한/낯선’, ‘시원한/답답한’ 정서적 내용에 유의한 차이성을 보였다. 따라서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인식은 유년시절의 성장한 지역에 따라서 차이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 장소에 따라 정서요인별 반응을 분석한 결과, 주거내부의 경우는 안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간들이 비교적 높은 ‘유쾌성’의 긍정적 정서를 보이고 있으며, 마루(거실), 개인방, 사랑방은 ‘쾌적성’의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외부 장소의 경우는 뒷마당과 수돗가, 옥상 등은 ‘유쾌성’의 정서요인이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변소, 장독대, 헛간, 화단 등은 ‘쾌적성’의 정서가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이며, 앞마당은 ‘지배성’. 계단은 ‘홍분성’ 등의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린 장소인 동네어귀는 ‘유쾌성’과 ‘홍분성’의 정서가 다소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유년기에 있어서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은 각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특히 이들 장소는 정서적 내용에 의하여 의미있는 장소로 특성화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주

- 1) 현상학적 접근은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사람의 세상에 대한 개인적 관점과 사상의 해석, 즉 개인적 현상학(phenomenology)에 관계하고 있다. 현상학적 심리학자들은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연구함으로써 인간 본성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홍대식 역, 1988).
- 2) C. C. Marcus(1978)가 제시한 “환경자서전(environmental autobiography)”분석 방법을 문은미(2000)는 이를 “회상기록적 방법”으로 명하였으며, 본 연구의 방법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적용하였다.
- 3) 문은미(2000)는 유년기의 아동 놀이 장소를 집안, 집경계 내부, 길/공지, 자연요소, 상점, 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장소에 대한 다양한 가치유형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주거환경의 정서적 의미가 담긴 장소의 유형화는 연구의 성격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제한적으로 분류하였다.

4) 요인분석은 20개 형용사 쌍들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KMO 측도가 .858로 변수들간의 설명력이 꽤 좋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방법으로 6회 반복계산에서 의하여 4개 요인으로 수렴되었다.

참 고 문 헌

1. Bachelard, Gaston. 「La poetique de l'espace(1985)」. 가스통 바슐라르(郭光秀 역) 「空間의 詩學」, 서울: 민음사, 1990
2. Christian Norberg-Schulz(민경호외 역), 「GENIUS LOGI(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1996
3. Christian Norberg-Schulz(이정국·진경돈 역), 「Architecture : Meaning and Place(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Spacetime, 1999
4. 김영철, “정서적으로 충전된 개인공간장과 그 건축공간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8호(1995.8), pp.75~83
5. 문은미, “유년기 회상기록분석을 통한 아동의 놀이장소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5호(2000.5), pp.27~32
6. 민병호, “과거 주거지의 외부공간 특성과 아동의 놀이 행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4호(1998.4), pp.35~44.
7. 이규목,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권 1호(1988), pp.35~45
8. 홍대식 역 「심리학 개론」, 박영사, 1988
9. 이진환외 역, 「환경심리학」, 학지사, 1997
10. Donlyn Lyndon and Charles W. Moore , 『Chambers for a Memory Palace』,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4
11. Roger M. Downs & Daid Srea, 「IMAGE AND ENVIRONMENT」, Aldine Publishing Co, 1973
12. Chawla, Louise, Homes for Children in a Changing Society(Ervin H. Zube, Gary T. Moore ed.,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Vol.3), Plenum Press, New York, 1987
13. Chawla, Louise, 『Childhood Place Attachments』 (Irwin Altman and Setha M. Low edited, Place Attachment), Plenum Press, New York, 1992
14. Cooper-Marcus, Clare, 『Environmental Memories』 (Irwin Altman and Setha M. Low edited, Place Attachment), Plenum Press, New York, 1992
15. Cooper-Marcus, Clare, Remembrance of landscapes past, Landscape, 22(3), pp. 34-43, 1978
16. Mehrabian, A., & Russell, J.A.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psychology』. Cambridge, Mass. : M.I.T. Press, 1974